



12면

전북대,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5년 연속 선정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음 8월 12일) 제2629호

대표전화 (063)288-9700

“추석이 고비” 방역강화 행정명령

전북도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등 동시 발령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도... '따뜻한 거리두기' 강조

전북도가 지난 25일 오전 '추석 특별 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은 귀성과 여행이 증가하고 다중이용시설 밀집도가 높아지며 차례상 및 선물구입 등을 위한 쇼핑객 증가 등 확산 위험요인이 있어 특별방역기간(28일~10월 11일) 동안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역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플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28일~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시·도별 완화 조치 불가)하고 그 다음 1주간(10월 5일~11일)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도가 큰 전국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연휴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 1/2 제한과 사전예약 등을 시행한다.

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 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역, 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의 방역 실태와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의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

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도내 코로나19 환자가 광복절 집회 이후 50여일 동안 확진자가 78명이 증가해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약 2배에 근접하는 등 폭발적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지난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도, 9월 태풍 과수피해 재해보험금 지급

추석 전 순차적 지급 예정

전북도는 9월 태풍으로 발생한 사과 과수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조사를 완료, 추석 전에 재해보험금을 피해가 큰 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7~8월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인 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관련 단체에 불법 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과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 수신 발송, 집회 예정지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해 참석자제 및 명단작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 시 신속 수사를 당부했으며 전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는 이미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 운송 금지를 발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추석은 진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 하고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초등생 20만원 · 중학생 15만원

전북교육청, 아동특별돌봄 · 비대면 학습지원 일괄 지급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초·중학교 연령대의 아동에게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 270억3,343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특별 돌봄지원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된다.

초등학생 연령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 연령은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재학생 9만 4,925명과 초등 연령대 학교 밖 아동 2,500명 등 총 9만7,515명이며, 중학생은 재학생 4만9,100명과 학교 밖 청소년 1,017명 등 총 5만

117명이다. 초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스쿨뱅킹이나 별도 계좌 신청을 받아 현금으로 추석 전인 오는 29일까지 일괄 지급된다.

중학교 재학생은 비대면학습 지원금을 1인당 15만원씩 오는 10월 8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 대안학교나 홀스쿨링 등 학교 밖 아동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별 신청을 받아 10월 23일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도 “연안여객선 탈 때 마스크 꼭 착용”

미착용 시 승선 거부...주의 당부

전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중심으로 도민과 귀성객, 방문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여객선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연안여객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승선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연안여객선 대합실, 객실과 같은 공용이용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과

1~2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선상에서 음식물 등을 섭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추석 다음 날인 10월 2일에 여객선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여객터미널과 여객선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박 소독 및 이용객 발열 체크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청,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운조합, 해양경찰서, 여객선사 등은 추석 연휴 기간에 특별수송대책반 구성 및 비상 대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 운동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모두 8,500명, 하루평균 1,416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항 횟수를 증회 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재 도내에는 5만1,091농가 8만5,984ha(2020년 8월 말 기준)가 재해보험에 가입돼있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에 신분증을 지참

해 도내 농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가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축! 전주매일 창간

숙잠 아미노 E

그 맛이 달고 평하여 독이 없고 금수중에 효험이 있으며, 풍증과 허로, 여위는 것을 치료하면 양기를 돌게한다

- 동의보감 -

마지막 영(齡)의 성장이 극도에 달하여 뽕먹기를 중지하고 고치지를 장소를 찾아 움직이는 누에를 숙잠이라고 합니다. 담백질 함량이 매우 많고, 세린, 글리신, 알라닌, 타이로신 등의 아미노산 함량이 특이하게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전북대학교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단**

2015년 7월 전북대학교와 부안군이 주관하고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결집해 출범했다. 부안의 건강하고 유익한 소재가 고부가 가치 건강식품으로 제조 및 가공될 수 있도록 식품 가공 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의 문화·관광·체험을 연계한 농업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한다.

T.063-219-5434

홍잠100%